

# 佛祖의 활구 짧지만 긴 울림으로 떨치다

### 진제 스님 상당법어 81칙 '옛 거울에서 달을 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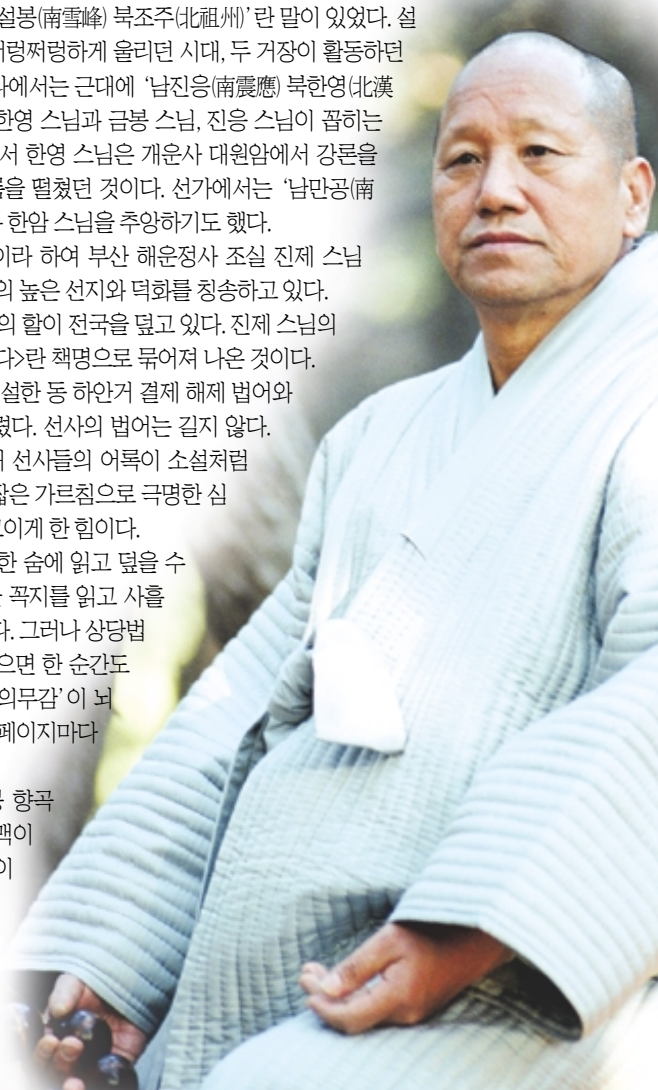
중국 '선의 황금기'였던 당대(唐代)에 '남설봉(南雪峰) 북조주(北祖)'란 말이 있었다. 설봉의 가르침과 조주의 가르침이 남북에서 저명저명하게 울리던 시대. 두 거장이 활동하던 지역에 따라 그렇게 불렸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에 '남진응(南震應) 북한영(北漢永)'이란 말이 있었다. 근대 3대 강백으로 한영 스님과 금봉 스님, 진응 스님이 꼽히는 데 진응 스님은 천은사 대원사 화엄사 등에서 한영 스님은 개운사 대원사에서 강론을 펼치며 남쪽과 북쪽에서 강백으로서의 이름을 떨쳤던 것이다. 선가에서는 '남만공(南滿空) 북한암(北漢岩)'이라 하여 만공 스님과 한암 스님을 추앙하기도 했다.

요즘은 '남진제(南眞際) 북송담(北松潭)'이라 하여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사진)과 인천 용화사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높은 선지와 덕화를 칭송하고 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불소식인 듯 '남진제'의 활이 전국을 덮고 있다. 진제 스님의 상당법문 81 칙(則)이 '옛 거울에서 달을 건지다'란 책명으로 묶여져 나온 것이다. 동화사 금당선원과 해운정사 금묘선원에서 살한 동 하얀거 결제 해제 법어와 백양사 해운정사의 무차선회 법어 등이 실렸다. 선사의 법어는 길지 않다. 짧은 말솜으로 길고 큰 울림을 남긴다. 역대 선사들의 어록이 소설처럼 길었다면 선불교는 소설이 되었을 것이다. 짧은 가르침으로 극명한 심지를 감찰하는 솜씨야말로 선불교를 선불교이게 한 힘이다.

진제 스님의 상당 법어들은 짧지만 결코 한 숨에 읽고 덮을 수 없다. 읽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한 쪽지만 읽고 사울을 음미해도 가슴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당법어의 전행이라 할 진제 스님의 법어들을 읽으면 한 순간도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기성찰의 '의무감'이 뇌리에 꽃히기도 한다. 선사의 활발한 기상이 폐이지마다 번뜩이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말미에는 경허 선사에서 해월 운봉 향곡 선사를 거쳐 진제 스님에 이르기까지 법맥이 이어져 온 '전법계'가 실렸다. 향곡 스님이 진제스님에게 내린 전법계는 "부처님과 조사의 산 진리는/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라/지금 그대에게 활구법을 부촉하 노니/겨두거나 놓거나 그대 뜻에 맡기 노라"이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간 '님' 창간...만해정신 새로운 '님운동' 주도

<님>이 왔다. 울 볼 처음 <님>이란 이름으로 왔지만 '만해세일'을 바꾼 것이다. 만해사상실현선양회가 부정적으로 냈던 <만해세일>이 정기 계간지 <님>으로 새 출발 한 것이다. 생명사랑 나라사랑 인류사랑 평화사랑이라는 화두를 품고 온 <님>은 생명과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우리 시대를 비추는 햇별이고자 한다. "기른 것은 다 닦아다"라던 한용운 스님의

간절한 마음이 또한 <님>의 지향이어서 소박하고 꾸밈없는 글들이 가득하다. 그 글들은 다름 아닌 새로운 '님'운동의 힘이다. 그래서 <님>은 "생명사랑, 나라사랑, 인류사랑, 평화사랑으로서 만해정신은 21세기 인류가 처한 문명사적 위기를 타개하고 모든 인류가 생명사랑 평화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효과적 대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선언한다.

임연태 기자

만해학술원 | 2500원

### 죽음, 삶의 끝? 새로운 시작...

티베트불교는 죽음의 순간이 깨달음으로 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최고의 명상가가 아닌 보통사람들에게 죽음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끝없는 고통의 환생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 톨쿠핀들 립포체는 이 책을 통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혼란을 치유하고, 이런 변화의 과정에 대비한 우리의 수행에 힘을 더해준다. 또한 죽음과 환생의 순간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삶 속에 존재하는 궁극의 평화와 기쁨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평화로운 죽음 기쁜탄생 톨쿠핀들 지음 도솔출판 청년사 | 2만8000원

이 책이 무엇보다 흥미를 끄는 것은 죽음과 바로 도(중음계)를 체험한 티베트 스승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담아낸 점이다. 이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델룩'들의 체험담이다. '델룩'이란 쉽게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다. 즉 죽음의 세계를 경험한 뒤 다시 살아난 이들이 전한 생생한 체험담은 현대 서양의 입사 체험자들의 증언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 책에 나오는 가르마 왕진은 일주일 동안 죽어 있었다. 그는 죽음을 맞을 때 처음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의 몸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지독한 갈증을 느끼며 추위로 부들부들 떨었다. 마지막에는 눈이 흐릿해지고 청력이 사라지면서 부르는 것도 들을 수 없었다. 동시에 삶의 기억들이 마음을 스쳐지나가는 동안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이 멎었고, 철쭉 같은 아픔 속에 가라앉으며 무의식 상태에 빠졌다. 죽음의 통로에 들어설 때 흙, 돌, 불, 공기 같은 네 가지 원소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겪는 것들이다.

이 책에선 이런 분해 후 호흡이 멎으면 '순수한 빛'인 참본성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티베트불교에서는 죽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는 일들을 꿈속에서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상일 뿐임을 자각한 채 놀라지 말고 평화롭게 받아들여야, 멋진 미래를 맞는 황금의 기회로 변모시키라고 권하며, 그 방법을 일러준다. 하지만 이 책의 메시지는 '죽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 당신의 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손은 예쁠수록 보기 좋은 것이나 마음의 손이 예쁠수록 아름다운 극치에 이를 수 있다. 아름다운 일을 하는 손, 남의 상처를 닦고 어루만지는 손, 마음의 손으로 이웃의 가슴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음이니, 날마다 거울을 닦듯 내면의 손을 닦아야 한다."



그손 두었다 어디에 쓸꼬 석의선 지음 연인 M&B | 1만원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전국 교도소 11곳의 교정활동에 법열을 불태우고 있는 의선 스님(지장사 주지)이 쓴 책 내용 중 일부다. 이 책은 수행자로서 자신의 삶과 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다. 붓가는 대로 거침없이 써내려간 가벼운 예세이 형식이지만 내용만큼은 무게감이 느껴진다. 가슴에 새겨진 주옥같은 법문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무치면 보약이요, 남편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나를 무치면 독약입니다. 손끝에서 똑같이 버무려 지는 것도 마음은 정확히 분별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무엇보다 더욱더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스님의 실천 수행에서 얻어진 사유의 단상이라는 점이다.

의선 스님은 "창조적 도구인 우리의 손을 단 한 순간이라도 남을 위해 사용해 봐야겠다는 보살행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며 "죽으면 책을 우리네 손을 아니 우리의 육신을 값있게 써 보자"고 당부했다.

"중생의 삶이 꽃처럼 부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작은 소망"이라는 스님의 '부처를 닮은 사람들'의 모임을 이끌어 양로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재활원 등에서 봉사행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주일 기자

### 화엄일승법계도의 인류학적 해석

불교는 '일자(一者)'와 '다자(多者)'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경전이 <화엄경>이고, 그것의 핵심을 뽑은 것이 바로 '화엄일승법계도'이다. 이 책은 문화인류학자인 저자가 '화엄일승법계도'를 구조인류학적으로 해석했다.



불교인류학 박정진 지음 불교출판사 | 1만원

최근에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종교적 현상을 바라보는 연구가 활발한 편인데 이를 흔히 의식과 무의식, 초의식이라고 한다. 이는 천지인 사상으로 보면 초의식은 천(天), 무의식은 지(地), 의식은 인(人)에 비유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또한 저자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종교현상을 볼 때 초의식은 절대성과 '일자'를 추구하고, 무의식은 상대성과 '다자'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이러 저자는 '다자'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적 세계관을 갖고 있음을 뜻하며, 비록 상대적 세계관 속의 상대로서 절대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절대성 즉 '일자'는 비대칭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결국 이 책에서 저자는 의식은 절대성과 상대성 사이에서 절대-상대적인 세계를 구축하는데, '화엄일승법계도'는 바로 절대성과 상대성을 잘 조화시키면서 세계의 변화와 불변을 동시에 설명해낸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중국 선종(禪宗)의 신화조직과 정중종(淨衆宗)' '한국 불교와 무교의 상관관계' '불교와 차' 등 인류학의 관점에서 불교를 새롭게 해석한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도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2	하루 108배 내용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이룸미디어	
3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초화로운 삶	
4	천문학자, 우주에서 북극을 찾다	이시우	조기기술	
5	육조대사 법보단경	법지 역주	운주사	
6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제는 함께	능행	도솔	
7	문없는 문, 빛깔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먼트	
8	무비 스님의 신성명 강의	무비	조계출판사	
9	입보리행문	산티대바	하인전통	
10	옛 못에서 달을 건지다	진제	클로먼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쉽게 살이 빠지는 비법 공개  
관절염을 가정에서 쉽게 해결하는 비법 공개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호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법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기혈수비법 강좌안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남산스님 개인 친견 가능)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역 3번 출구 내 국부카르마 강의장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MBC 휴먼 TV 공감  
MBC 모닝와이드, SBS 호기심 천국 외 다수

**국부카르마** 문의 080-999-1080  
국민은행 103001-04-001967(예금주:운두영)

화제의 신간  
저자: 남산스님  
변형산국판  
컬러/값 10,000원

## 5,175자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금강경 족자

2007년 정해 돼지해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 드립니다.

금본 소개하는 금강경 이 작품은 방대한 금강경 5,175자를 延壽스님이 각고의 노력으로 족자 한 면에다 금분으로 직접 써서 정성들여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有人持用(유인지용) 法布施(법보시)로 각 가정에서 한 점씩 소장하여 受持讀誦 爲人演說(수지독송 위인연설) 하면 信(신) 解(해) 行(행) 證(증) 七佛通揚(칠불통양) 金剛道場(금강도량)에 앉아 佛果(불과)를 성취하고 성불에 이르십니다. 특히 三災(삼재)에 해당되는 巳 酉 丑(병, 닭, 소) 띠 생은 入三災(입삼재)해 2007 丁亥年에 장엄한 금강경 족자 한점씩을 소장하신다면 善根(선근) 回向菩提(회향보리)로 能淨業障(능정업장)하십니다. 善根功德(선근공덕)으로 삼계에서 벗어나고 모든 재액이 소멸되며 각 가정 富貴尊榮(부귀존영) 得福甚多(득복심다)하실 것입니다.

◆ 가격 : 32만원 → 16만원 ◆ 200개 한정판매  
◆ 크기 : 세로 180cm X 가로 78.5cm (양면은 14K 금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방대하고 장엄한 금강경 족자를 불자님 누구나 부담없이 한점씩 소장할 수 있도록 저렴한 보시가격으로 드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 점씩 법보시 하십시오.

持經功德(지경공덕)으로 그 어떤 물건과도 비교가 되지 않으며 우주전 인류에 찬란히 빛나는 21세기 부처님 최고의 선물 재선목록 1호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정적 구입하십시오. (선착순 200개 한정판매 합니다.)

■ 입금통장 계좌번호 : 하나은행 301-127443-00207 (예금주: 김근환)

**삼불사금강불교문화연구원**  
부산시 진구 부전1동 477-27번지 리베라 원룸 601호  
전화 051)806-0316 / 휴대전화 011-488-0316 정담 延壽 합창